



칸(Khan), 전설의 시작 그리고 발자취

이 자리의 칸을 있게 한 분들께 감사하며

무주고 토른 논술 동아리 '칸(Khan)'은 2010년 3월 설립되어 올해로 11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칸의 창시자인 김영호 선생님(전주교과)과 2011~2013년도에 칸에서 활동한 이소연 선배님을 인터뷰했다.

Q. 지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선생님 : 무주고 최고의 동아리 칸(Khan)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해까지 여러분과 칸에서 함께 활동하다 지금은 전주교과 자리를 옮긴 김영호입니다. 지도교사와 동아리 회원으로 인연을 맺었던 2, 3학년 학생들은 물론 무주중에서 저에게 국어를 배운 1학년 신입생들도 대부분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비록 지면을 통해서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소연 선배님 : 무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입학한 해인 2011년도부터 졸업 전인 2013년까지 동아리 '칸'에서 활동했던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졸업한 지가 꽤 되어서 후배들에게 이런 글을 남기기 조금 민망하기도 하네요. 그동안 칸에서 했던 일들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의 경험과 추억들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동아리 '칸'에서는 1학년 때부터 부원들이 활동했습니다. 당시에도 토론을 잘했던 2학년 선배와 같은 반 친구, 그리고 당시 동아리 지도교사였던 김영호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시간에 모여 '칸' 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칸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김영호 선생님 : 오랜 교육 생활 동안 수업이 많은 동아리를 지도해왔지만, 동아리 칸은 주제에 특별한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2010년 무주교과 발행반이 근무하면서 심성도 굵고 뒤편이 열심히 하는데, 조금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 고민하다가 생각하게 된 것이 토른이었고, 국어 수업뿐 아니라 동아리에도 토른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무주고 토른 동아리 '칸(Khan)'이 되었습니다.

Q. 당시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김영호 선생님 : 5년 동안 칸(Khan)'을 운영하면서 참으로 많은 추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기차를 타고 1박 2일 서울 탐방을 다녀온 일, 부안에서 있는 전라북도 해양수산원에서 1박 2일에 걸쳐 펼쳐진 건국 고등학교 토른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일, 또한 매년 고내 토른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에게 토른문화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했던 일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주고에 입학한 아들이 칸(Khan)'에 가입하고 동아리를 맡아 이끌어 가는 모습도 대견하고 기쁠 것입니다.
이소연 선배님 : 1학년 때, 친구와 조를 이루어 토른했던 적이 있습니다. 2학년 선배와 말하는 토른이었는데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감에 준비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대와는 달리 교과질, 반박 과정에서 말이 꼬이며 실수가 계속됐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우리 조의 패배였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고, 열심히 준비해준 같은 조 친구에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친구에게 거듭 사과를 했는데, 자기도 속상했을 테고 당시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이후로 그 친구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그게 '칸' 활동 당시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입니다.

Q. 칸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과 그 점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소연 선배님 : 정기적으로 토른했던 경험은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토른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다 보니 논리적 표현 능력이 향상되어 '국어'라는 과목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국어 교육과에 입학한 후 토른을 할 때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력으로 대학 졸업 후 현재 선생님의 역할로 학생들에게 국어와 토른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격이 인내심, 고수관계에 고민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요. 아까 제 소개에 적었던 대조자의 관습사를 비롯한 다양한 동아리를 했는데, 이것은 제 고등학교 생활에, 그리고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목적으로든 다양한 동아리에서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재를 꼭 즐기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에 후회 없이,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꼭 보람차진 않더라도 돌아왔을 때 기억나는 일이 몇 개쯤 있는 고등학교 생활이 되길 바라요.

Q. 마지막으로 제 2회 칸 동아리 신문 발행을 위해 축하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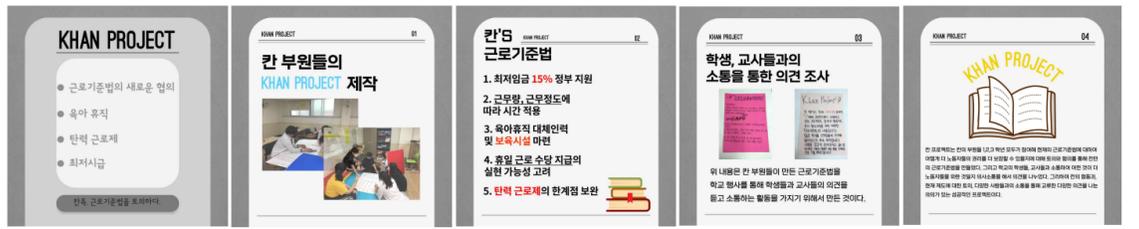
김영호 선생님 : 이렇게 소중한 동아리 칸이 어느덧 11년째를 맞이했고, 동아리 신문을 발간한다고 하니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칸이라는 동아리 이름처럼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동아리신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주고 고등학교 동아리 칸이여 영원하라!
이소연 선배님 : 칸, 동아리 '칸'의 신문 발행을 축하합니다! 처음 인터뷰 연락을 받았을 때, 일상이 바빠서 답이 늦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해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도, 그때부터 활동하던 '칸'이 신문을 발행할 정도로 이렇게 오래, 탄탄하게 활동하는 동아리가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동아리를 잘 이끌어준 후배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꼭 학생들의 주도하에 활발히 활동하는 동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유빈, 허진호 기자



무주고등학교 동아리 칸(Khan)이 제 2호 동아리 신문 발행을 기념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칸의 부원들은 칸의 K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포즈를 하고 있다.

칸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권에 한 발짝 더 다가서다

칸's 근로기준법 제언과 학교 행사를 통한 소통 - 카드뉴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칸은 직접 제언한 근로기준법을 학교 반디랑 앞에서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무주고 학생들에게 알리고, 노동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모여라! 칸과 함께

고품격 토론 동아리 칸

- 다양한 주제 토론
- 모의유엔
- 진로와 관련 발표
- 행복한 분위기!

토론과 발표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에게
저희 '칸'이 기다립니다

기반부원 2-2 배유빈에게!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더 넓게! 칸 자유 탐구 발표

각자의 진로 관련 주제로 탐구 발표 진행

지난 9월 8일, 시사토른 동아리 칸에서는 자유 주제 탐구 발표를 진행하였다. 저마다 관심 있는 시사 주제를 정해서 조사 및 탐구하고 발표하는 활동이었다. 각각 조사한 깊이 있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고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이해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칸 동아리 부원의 자유 탐구 활동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무주고 2학년 백건일 학생
Q. 자유 주제 탐구 주제와 그 주제에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의 자유 탐구 주제는 '아프가니스탄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전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이러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Q. 주제 탐구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아프가니스탄의 역사가 매우 복잡하여 주제 탐구 발표

칸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궁금해!" 제 2회 칸 모의UN,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해내다

코로나 19, 고교학점제, 누리호 발사

무주고등학교 시사토른 동아리 '칸'에서 2021년 10월 현재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을 선정해 이 사건들이 미래에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해 보는 코너를 만들었다. 오늘날 가장 큰 이슈를 독자들에게 재미있게 소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나 우리의 생각을 담아 볼으로써 시사토른 동아리인 '칸'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모두 보여준다.

2022 누리호 발사 성공
지난 28일 누리호가 위성 궤도에 진입을 성공했다. 누리호는 28일 오후 4시에 전남 고흥 소재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이번 발사는 1차 발사와 동일한 궤도로 비행하였다. 8월에는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 고교학점제
지난 2일 고교학점제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되었다.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이목을 끌고 있다.

2024 코로나 종식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라오스, 덴마크 등을 이어 15번째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다. 당장 내일부터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지난 4년간 가장 기다려온 순간이다.



칸의 부원들이 진로와 관련된 자유 탐구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제 2회 칸 모의UN,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해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대처 방안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를 고민해 보고자 부원들이 고민 끝에 선정된 의제다.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첫 단계인 국가 선정에 들어갔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소멸할 위기에 처한 투발루, 대부분의 발전용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이용하는 덴마크, 풍부한 자원을 지닌 미국 등으로 국가를 나누어 총 8개의 국가로 모의 유엔을 진행하였다. 본격적으로 각국의 대사가 나와 기초 연설문을 발표하는 것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여기서, 기초 연설문 이후 회의에서 각국의 정책, 취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전에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칸 모의 유엔의 8개 국가는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처, 정책 등에 대하여 기초 연설문을 발표하였다. 기초 연설문을 발표한 뒤 각국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 시간 중, 한국의 캐나 다로부터 이스케이프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보호에 앞섰다는

의 의견을 보였으며,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로터 셀 기술 도입을 권유하며 협력해달라고 하였다. 인도도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대기 오염이 극심해지고 있는 자국의 공장을 문을 닫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투발루는 한국의 우수 기술을 받아들여 자원을 공급하는 대신 전기 자동차의 발전을 돕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결의문과 결의문의 사본을 통해 알 수 있다.

8개 국가는 모두 기후 변화 관련 의제가 아니라 각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결의문에 자국을 포함한 모든 지구촌의 존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하게 주장하였다. 따라서 8개국은 각각의 국가와 협의체를 결성하여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또 그들은 각각이 주장한 협의체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각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인 모두의 문제이다. 지구촌 공동체들의 협력을 더 이상 의심할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중물이다. 칸 모의 유엔의 결의안처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밝히고 나서 준비하면 더 이상 기후 변화로 걱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끝으로 칸은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토른해 보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내년도 진행될 칸의 제 3회 모의 유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Q. 주제를 선정할 때 특별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아프가니스탄의 역사가 매우 복잡하여 주제 탐구 발표

어서 좋았다. 학생들이 이렇게 논리정확하고 질서 있게 토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더불어 성장'로 2022년의 도전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갈 사회를 스스로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영향력이 대두되면서, 정치권 관습이 사라져야 할 시대를 스스로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영향력이 대두되면서, 정치권 관습이 사라져야 할 시대를 스스로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토른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 이후 계속된 공방이 이어졌으며, 두 편 모두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비판하며 의견을 내놓았다. 찬반양론이 오가며 열정적으로 토른에 임하면서도 질타와 형식을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지켜야 할 수 있는 토른 참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토른을 이끌어 내었다. 이번 토른은 우리나라 국민, 그중에서 토른에 참여하는 우리 세대에 대해 생각하는 사적인 차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사 토른 동아리'라는 그 의미를 되새긴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토른에 참여하는 우리 세대에 대해 생각하는 사적인 차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사 토른 동아리'라는 그 의미를 되새긴다고 볼 수 있다.

이진희 기자

이진희 기자